

추석

설레는 고향집 ... “야들아 어서 오니라”

“물과 아프담서, 또 뭘 일을 그라고 향가?”
 “추석에 아그들 온당께 고추 말려야제, 깔린 게 중국산인데, 꼬치가리라도 싸 보내야 마음이 놓이제.”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에 사는 정서운(77) 할머니가 8일 마당에 앉아, 남편 김학서(84) 할아버지와 붉은 고추를 말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추농사가 실통함아, 정 할머니는 한 근에 2만원씩 주고 고추 30근을 따로 샀다고 합니다.
 “서울것들도 온당가?”
 “오고 싶어 오고, 가고 싶어 가겠소, 지들도 묵고 살랑께 못 오는 것이제.”
 “글쎄, 뭇 험다고 꼬치를 그라고 많이 말려? 누굴 풀라고?”
 “아, 바빠서 못 온 것인데 김치 당구께 택배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니요. 아, 시끄럽소, 저그 가서 이불이나 털고 방에 걸레질이나 하시오.”
 60년간 살을 맞대고 살아온 정 할머니 부부는 4남 3녀를 뒀고, 자식들에게서 12명의 손자도 봤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울과 인천에 사는 두 딸은 못 온다고 하네요. 또 뇌졸중으로 입원해 있는 광주 사는 큰딸(59) 얼굴도 올 추석에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큰애가 훌쩍 털고 일어나 추석에는 집에 와야 한다...”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릉 들어가 방이나 치우란말이요, 큰애 대신 내가 죽을랑께.”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가야제, 뭘 소린가.”
 “꼬치를 만지작거리지만 말고, 요로고 꼬랑지를 따란 말이요.”
 가을 하늘은 푸르기만 한데, 노부부는 눈시를 붉어지도록 붉은 고추만 바라봅니다.
 “무담시 나만 타박하네, 방 땀으러 갈라네.”
 “인자, 기자 양반들도 사진 고만 찍고, 얼릉 추석 쇠러 가시오.”
 올해도 추석에 찾아온 자식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다 고추가루며, 마늘이 담긴 보통이를 양손 가득 들고 도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집에 남은 노부부는 무척 시래기를 말리며 “뭘 더 줄 것 없을까” 토닥토닥 ‘사랑 싸움’도 하며, 다음 설날을 기다릴 겁니다.

/글·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